

MELL PROJECT SYMPOSIUM 2006

‘동아시아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둘러싼 협동활동을 향한 도쿄선언’ (도쿄선언)시안

글 : 미즈코시 신

■ 취지와 경위

이 글은 미디어 생태계를 보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미디어를 표현하고 배우고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는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2001 년도에 만들어진 MELL PROJECT 에서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의 세 지역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만남과 대화를 거듭하며 시민의 미디어표현 활동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둘러싼 문제점과 가능성을 공유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그 중 한명인 미즈코시 신이 집필했다.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동아시아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둘러싼 협동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 지역의 공통된 미디어 리터러시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 그 과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공동선언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 공동선언의 뒤에는 세 지역의 상대적이고 독자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타개책을 기술한 글을 엮어야 할 것이다.

■ 미디어 리터러시를 둘러싼 문제군(問題群)

21 세기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것은 인터넷이 가져온 밝은 민주주의적 사회도, 사람들의 개성과 창조성을 보장하는 정보사회도 아닌, 고전적인 권력과 경직되고 편견으로 가득 찬 글로벌 정보사회였다. 한국, 대만, 일본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주로 1990 년대에 들어 북미와 유럽으로부터 이식되어 주목받기 시작하며 전개되었다. 그 배경에는 언제나 글로벌한 정보사회의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둘러싼 문제는 복잡하다.

첫번째, 끊임없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술중심적인 미디어 진보관이 대두된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격차와 표리일체의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디어를 기술적으로 잘 다루는 것이 보다 지적으로 우수하다는 가치관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두번째로 정보기술이 가능하게 한 글로벌한 정보유통과 전파로 인해,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지역주의, 성 차별 등을 둘러싼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이 재생산되고, 사회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 나라의 문화속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분명 그 한계가 있다.

세번째로 다양한 새로운 미디어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 커뮤니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람들과 접하는 작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매스미디어가 뿌려대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이고 계몽주의적인 교육실천활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21 세기의 미디어환경과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디자인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동아시아의 협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동아시아에서의 협동의 필요성

한국, 대만, 일본은 각각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역사사회적 문맥을 가지고 있으며 미디어와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미디어와 교육을 둘러싼 문화가 전통적인 한자문화, 불교문화 등의 전파와 유통의 기반 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후 미국화(Americanization) 등으로 인한 영향, 1980년대 이후의 세계화·정보화의 프로세스 속에서 일종의 공통점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상대적으로(하지만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북미나 유럽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공통된 점을 바탕으로 한, 협동적인 실천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기술중심적인 미

디어 진보관과 미디어로 인한 스테레오타입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이고 실용적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디자인할 시기가 왔다.

■ 동아시아 미디어 리터러시의 디자인

동아시아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전개되어야 한다.

1. 인문사회계의 거대한 사상의 흐름과의 접합:

미디어 리터러시는 특정의 교육을 위한 단순한 실천적인 노하우가 아니다.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언어, 담론과 문화의 힘을 의식한 20 세기의 사상(구조주의, 기호론, 문화연구 등)을 원류로 하는 거대한 지(知)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2. 미디어 놀이/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실천의 계층적 결합

미디어 리터러시를 독립된 특수한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넓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학습활동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린이의 놀이나 미디어 아트와 같은 ‘미디어 놀이’(미디어를 둘러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바꾸는 활동),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를 비롯한 시민미디어로 대표되는 ‘미디어실천’(배운 것을 사회화해서 공공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활동) 과의 계층적인 관계속에서 한정적이고 연관적으로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3. 표현과 수용/ 창조와 비판의 순환성

미디어 리터러시의 비판적인 수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를 만들고, 미디어에서 표현하는 것은 미디어를 비판하고 문제상황을 각성하는 것과 순환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이런 활동을 단순히 평론적인 미디어비판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순환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4. 다른 사회영역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배움의 공동체의 창조

미디어 리터러시를 반(反)매스미디어의 시민운동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미디어사업체를 처음부터 비난의 대상, 권력의 실체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미디어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착목해서 다원적인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사업체와의 비판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과의 협동관계 속에서 새로운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재량이 필요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교교육 안에서만 제도화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존의 분리되어 있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박물관교육과 도서관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횡단적이고 영역을 초월해서 협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기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의 탐구

인터넷과 모바일로 대표되는 쌍방향, 혹은 퍼스널한 미디어의 대두로 매스미디어의 존재는 상대화되고 있다. 이제는 미디어는 곧 매스미디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새로운 미디어의 대두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양식을 가져온다. 우리는 제 1 단계로 이 양식에 대응한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를 디자인해야한다. 그러나 각각의 미디어별로 서로 다른 미디어 리터러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제 2 단계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기존의 매스미디어 리터러시를 상대화하고 보다 기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만들어 냈고 동시에 미디어 리터러시의 전체상을 잡아가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6. 비판적인 분절지(分節知)와 디자인지(知)의 결합

동아시아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문사회과학적인 비판적 분절지(分節知)와 예술과 디자인, 이공학적인 실천적인 디자인지(知)가 결합한 상대적으로 새롭고 독자적인 방법론에 기초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대부분은 이것들이 잘 결합되어 있으나 방법론의 중요성은 간과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접근은 미디어론, 교육학 등에서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과 같은 다양한 순환성, 공동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활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독자적인 방법론의 확립이 필요하다.

7. 지속적인 전개와 제도적인 보장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디자인과 학습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프로그램과 도구의 표준화와 체계화가 필수적이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미디어사업체, 시민사회의 각 조직, 대학, 예술과 디자인영역이 글로벌한 시야를 바탕으로 지역 차원에서 연계해서, 시민에게 있어서 자율적인 표준화와 체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활동의 촉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s 여기서 말하는 표준화, 체계화, 제도적인 보장은 경직된 것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가 본래 가지고 있는 도발적인 놀이의 정신과 유연하지만 강한 비판정신을 살린 것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위와 같은 요소를 갖춘 미디어 리터러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것은 저절로 이종혼합적인 작업, 혼성적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될 것이다.

■ 위험요소

우리들은 일본에서 다음에서 거론하는 것들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건설적으로 대응해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일본 특유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대만 등과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리터러시’의 난립

각각의 미디어별로 리터러시가 있다는 것은 미디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상한 일이다. 기층적인 것에서부터 개별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분절화되고 전체성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논의되어야 한다.

□ 보호주의적 태도의 정치적 보수주의화

안이한 미디어 해악론이나 어른이 어린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계몽주의적 태도, 그것을 찬양하는 권력의 움직임에 주의해야 한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갖고 비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미디어논리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혼동

사람들이 미디어의 보이지 않는 부정적 측면을 이해하고, 직면한 범죄나 사건 등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혜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을 계몽적으로 선전하는 것과 미디어를 둘러싼 비판적이면서 능동적으로 각성하기 위한 활동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구별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육제도, 학문연구에 의한 식민지화

미디어 리터러시는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다양한 계보를 따르고 있지만 기존의 어떠한 제도화된 교육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론과 교육학, 기호론 등의 지견을 모두 담고 있지만 어떤 학문의 일부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학교나 교육의 문제를 떠나서, 또한 전통적 학문을 초월하는 분야다.